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2021. 07. 18. (나해) 제2277호

대구주보



침산성당 | 그림 -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예레 23,1-6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에페 2,13-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
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6,30-34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외판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대구 황금본당 주임 | 주민기 베네딕도 신부

오늘은 농민 주일입니다. 힘겨운 농사일에 고생하시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하며, 이들이 일상의 쉼 안에서 더욱 깊이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던 골프선수 박세리가 미국 동부 LPGA(여자프로골프협회) 투어에 참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개막 전날, 박세리는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퍼팅 연습을 하다 말고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아버지에게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골프만 가르쳐 주었지, 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골프만을 생각하고 쉼 없이 달려온 골프 여왕 박세리. 그녀가 슬럼프에 빠져 절망하며 지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골프에 지쳤다. 이제 골프에서 잠시 빠져나오고 싶다. 나는 골프 말고 다른 일상 생활을 즐기는 게 필요하다.’ 골프 여왕 박세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여러 지방을 쉼 없이 돌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판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쉴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기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판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권고나 부탁이 아니

라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휴식의 필요성을 아셨기에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쉬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판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마르 1,35)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쉴 만한 곳은 바로 ‘외판곳’이었습니다.

외판곳을 찾는다는 것은 늘 일하던 곳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일하던 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외판곳은 복잡한 생활을 벗어난 조용한 곳을 말하는 것이지만 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휴식이나 낮잠, 잠깐의 산책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의 쉼터에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그 시간은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넓고 큰 품이 우리의 쉼터이며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무엇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론 숨가쁘게 가야 할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차게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은 우리 삶에 특별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판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필로**



슬기로운 여름생활

교구 문화홍보국

늦은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에어컨, 선풍기 같은 냉방기구 사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량 급증은 결국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져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해 또다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습관화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방식 탓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냉방기 사용의 증가와 그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를 통하여 즉각적 이익을 얻는 시장은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합니다.”(『찬미밭오소서』 55항)

언제부턴가 손에는 부채가 아닌 작은 선풍기가 들려져 있고 선 없는 선풍기, 바람 없는 에어컨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냉방기구들. 이는 점점 더 소비를 부추기고 에너지 사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 잠 못 드는 열대야에 냉방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구를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꿀팁**



슬기로운 여름철 에너지 ENERGY 절약 방법

• 쿨(Cool) 맵시 실천하기

더운 여름철의 노타이, 반소매 셔츠 등 쿨 맵시 복장은 체감온도 2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낮춘 온도만큼 에어컨 냉방온도를 2도 높이면, 1대 당 연간 5.3kg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 냉방기 사용 시간 줄이기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하루 한 시간만 줄여도 연간 14.1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냉방기 사용 시 적정온도(25~28도)를 유지하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에어컨과 선풍기를 마주 보도록 작동시켜주면 바람이 더 빠르게 순환되고 더 큰 냉방효과를 볼 수 있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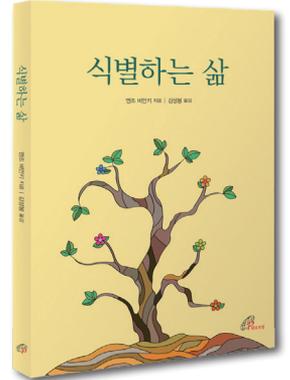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전력은 무려 가구당 1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대기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두거나, 콘센트의 전원을 꺼 두는 게 좋습니다.

식별하는 삶

하느님의 말씀에 따른 식별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식별'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은 '식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별이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보고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식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자기 성소에 충실한 존재로, 보편적인 부르심인 행복과 사랑의 거룩함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식별을 위한 기술로 성령께 온순한 자세와 경청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식별하는 사람의 양심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식별을 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성소를 충만히 살았는지를 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식별을 통해 자기 성소를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합니다.

이 책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나 모든 신자가 하느님의 고유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 전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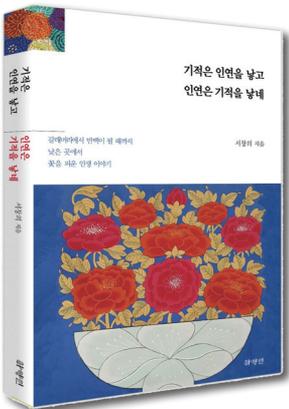
엔조 비안키 지음 |
김성봉 옮김 | 170면 |
11,000원 | 바오로딸

기적은 인연을 낳고 인연은 기적을 낳네

갈래머리에서 반백이 될 때까지 / 낮은 곳에서 꽃을 피운 인생 이야기

수녀님! 회장님! 선생님! 만나는 인연에 따라 달리 불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 발로 수녀원에 입회했다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십수 년간 입고 있던 수도복을 벗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온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만 골라 그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래머리에서 반백이 될 때까지 낮은 곳에서 생활하며 사랑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수녀님으로, 전교 회장님으로, 그리고 한글학교 선생님이 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였듯이, 하느님께 오롯한 마음과 사랑을 다해 소외된 빈민촌에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저자의 인생 이야기.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진정한 봉사와 나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길 기대합니다.



서창의 지음 |
312면 | 17,000원 | 하양인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성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金)사집 프란치스코는 충청도 덕산의 비방고지(현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창말)에 있는 양가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 공부를 하던 도중에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세속 학문을 버리고 교리를 실천하는 데만 노력하였으며, 일상을 기도와 독서로 보냈다.

프란치스코의 타고난 슬기와 재능,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 대한 희사와 애공은 복음 전파의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바탕으로 교회 서적을 열심히 필사하여 가난한 교우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효성이 지극하였던 그는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자 2년 동안 육식을 삼가면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예를 다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프란치스코가 교우들에게 나누어준 책들은 하나둘씩 포졸들에게 압수되었다. 이내 그의 이름이 관청에 보고되었고, 관청에서는 배교자 2명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그들이 프란치스코의 집을 탐문하고 돌아간 지 얼마 안되어 포졸들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덕산 관아로 압송된 프란치스코는 관장으로부터 유혹과 형벌을 번갈아 받으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다. 관장이 죄수들에게 매질을 하는 천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지만, 이것마저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옥중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 “천주님과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교우답게 살아가는 데 힘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였다.

같은 해 10월, 김사집 프란치스코는 해미로 이송되어 치도곤 90대를 맞아야만 하였다. 그런 다음 2개월 뒤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청주 병영으로 이송되었다. 엄동설한에 해미에서 청주로 가는 3일간의 180리 길은 프란치스코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인종(忍從)과 마음의 평온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청주로 이송된 지 얼마 안 되어 프란치스코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다음 많은 구경꾼이 모여 있는 장터(현 충북 청주시 남주동)로 끌려 나가 곤장 80대를 맞고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25일(음력 1801년 12월 22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8세였다.

목격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신망에 삼덕(三德)이 끝까지 아주 열렬한 것 같았고, 마음이 철석같이 굳었다고 한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김사집 프란치스코
(1744~ 1802년)



제26회 농민 주일 담화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바스의
제26회 농민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 가정의 현실과 도전 ⑧

“고도 산업 사회에서 출생률이 낮아지는 반면에,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은 종종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음의 순간을 멀리하려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존중이 더욱 필요합니다. 많은 가정들은 한 인간 존재가 주님의 파스카 신비 안에서 완성에 이르고 하나 되는 의미를 강조하는 가운데 삶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교회는 이러한 관행-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노인과 병약한 가족들을 돌보는 가정들을 도와줄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받아들이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엄격한 기준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48,49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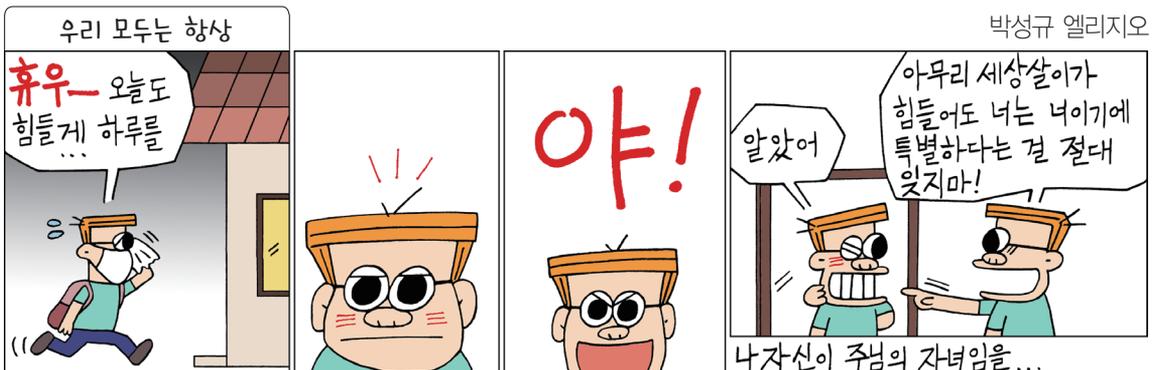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 - 냉장고 문에 메모지 부착하여 내용물 적어서 관리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27호 정답

1. 어디를 가든지 2. 사천 명, 다윗과 예배 책임자들
3.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 4. 예루살렘 모리아 산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19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9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19일(월) 11:00 계산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4일(토) 11:00 순례자성당

성소 | 피정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성소자 모집

견진성사 받은 35세 미만의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49-4596

(010)2749-4596

sicms1004@gmail.com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7.20(화)~21(수)

시니어: 7.27(화)~7.28(수)

문의: (054)382-0091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 피정

일시: 7.22(목)~25(일) / 8.19(목)~22(일)

장소: 성모솔숲마을(청도)

지도: 박상호 신부

문의: (054)373-3955 / (010)6630-3816

묵주 기도 피정

일시: 매주 목 11:00~16: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0:00

문의: (010)9045-0191

교육 | 모집 | 기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기간: 2021.8.23~2022.3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대상: 15세 이상 / 문의: (02)828-3600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1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DCU

개 강 : 8.31(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신 청 : 8월 31일 개강일로부터 한 달간 현장접수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과목당 7만원(2과목 이상 신청 시 과목당 6만원) | 문 의 :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화	수	목	금
10:00 ~ 12:00	동양고전 [주역 입문]	종교철학 산책	바오로서간	신약성경입문 영성신학
14:00 ~ 16:00	신학 입문 교회 음악	성경 읽는 재미	역사서 그리스도론	
19:30 ~ 21:30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가톨릭서간	

※ Ddum 카페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무료결석

비앤 비노의학과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전문) 이윤형 (요셉)

삼정브리타니시 건너편 올리브명 3F
Tel. 053 552 2525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발아 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정구 합동대거리에서 롯데캐슬합영 500m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온창고 · 고추건조기

할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대구광역시 중구 대명동 1가 100-1번지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현피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임청(베드로) 신부
1981년 7월 20일

행사 | 모임

농민주일 맛이 농민장터

일시: 7.18(일)
장소: 계산 성당 마당
물품: 유기농 농산물
(안동교구 우리농 지원)
주최: 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7.19(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780-4535

교육 | 모집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정리수납전문가, 장구, 문인화, 수필입문, 섬유평예, 성가반주오르간,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서양화, 캘리그래피, 칼럼바, 발성법, 연필초상화, 오카리나, 우쿨렐레, 책으로 떠나는 신앙여정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8월 말~12월 중순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포콜라레 영남 온라인 마리아폴리

일시: 7.30(금)~8.1(일), 총 6시간
주제: 행복의 열쇠, 내어주는 사랑
접수: 7.5(월)~27일(화)
신청: www.focolare.or.kr
문의: 포콜라레, (010)7670-3111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다시 읽는 구약성경(탈출기, 신명기):
수 14:30~16:30(9.1 개강)
심화반(시편과 묵상):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 (010)8750-6573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수도원 체험

기간: 4박 5일 이상(조정가능)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이 있는 39세 이하의 가톨릭 미혼 여성 / 인원: 1~2명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채용 | 안내

대덕성당 반주자(유료) 채용

문의: 626-3138

중리성당 지휘자 채용

업무: 주일 교중미사 지휘

연습: 매주 수 20:00

문의: (054)977-1225

성모솔숲마을 조리원 채용

위치: 청도 각북면 소재지
(주 3일 근무)

자격: 차차 이용 및 숙식 가능자

문의: (054)373-395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09:00~17:3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글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상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탑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정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당 앞 ☎ 053-959-7175
010-9597-7175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8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북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마스크(의약외품)
KF94(일 반) | 100장 35,000원
KF94(세부리) | 100장 40,000원
비말AD(흰색) | 100장 10,000원
비말AD(칼라) | 100장 12,000원
대표 장 중 화(분도)
분도상사 053-425-4701
010-3537-5559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사 10대이상 원비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정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검진
·고양이특화
·아견응급
대구광역시 남구 감성동 280-5 (이마트 감성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